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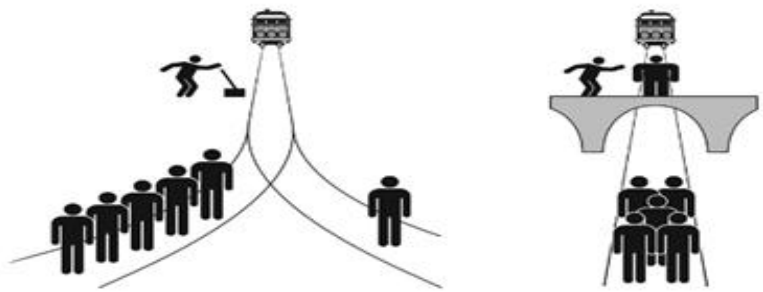
교육학과
2017-13500 정혜숙

I. 개요

- 수업제목 :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어떻게 다를까?
- 학습대상 :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 수업시간 : 50분
- 학습목표 :
 - 공리주의, 의무론의 개념을 알고 이를 비교하여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각 이론가의 입장이 되어 도덕적 선택을 내리고 이를 대변할 수 있다.
 - 공리주의, 의무론을 대표하는 이론가들의 발언만 보고 이것이 어느 이론가의 발언이며 어느 이론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었을 때에 상황에 대한 이론가들의 해석을 보고 이것이 어느 이론가의 발언이며 어느 이론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다.

II.1 수업청사진

수업사태	실행
주의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차이를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 시청 칸트/벤담/밀/윌리엄스/정언명령/양적 질적 공리주의' (4분) https://www.youtube.com/watch?v=n3-hWgTp7EI • 시청 후 간단한 질문 제시(e.g. 의무론,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혹은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이 맞는 것 같나요?) • 이번 시간이 끝날 때에는 각 이론가의 입장을 알고 직접 우리 삶에 이론들을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 제시 -> 동기부여
학습목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서해둔 목표 사항들을 다 함께 바라보며 함께 읽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리주의, 의무론의 개념을 알고 이를 비교하여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각 이론가의 입장이 되어 도덕적 선택을 내리고 이를 대변할 수 있다. • 공리주의, 의무론을 대표하는 이론가들의 발언만 보고 이것이 어느 이론가의 발언이며 어느 이론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었을 때에 상황에 대한 이론가들의 해석을 보고 이것이 어느 이론가의 발언이며 어느 이론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다. • 키워드로 정리하여 다시 제시하고, 수업시간동안 지속해서 상기할 것을 환기한다.

선수학습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rative' app 활용하여 윤리학의 분류에 대한 내용을 환기 및 복습한다.
자극자료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롤리 딜레마 상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롤리 딜레마 상황 설명(https://www.youtube.com/watch?v=RmJIN8iDW9w) 이후 학생들의 의견을 묻음. -> Socrative 이용(설문조사) • 트롤리 딜레마의 각 입장이 지지하는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킴 •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학습안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론 내용에 대해 설명: 칸트의 정언명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칸트의 거짓말 논쟁 제시 2) 정언명령, 의무론 개념 설명 3) 상황 제시를 통한 이해 돕기 • 공리주의 내용에 대해 설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리주의 논쟁 제시 2)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밀의 질적 공리주의 개념 설명 3) 상황 제시를 통한 이해 돕기
수행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교사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 3인 1조로 각 학생이 칸트/벤담/밀을 맡아 각 이론가의 입장에서 상황 해석 및 입장 대변 • 교사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돕고, 준비된 판서로 활동 마무리 • 활동 2) Socrative를 통해 연습문제 풀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론가들의 발언 구분 2) 각 상황에 따른 이론가들의 입장 구분
피드백 제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에 대해서는 돌아다니면서 각 조별로 확인한 example과 non-example을 대조하여 설명함으로써 피드백 제공 • 활동 2)에 대해서는 정답과 오답을 즉각적으로 제시하고 풀이해줌으로써 피드백 제공
수행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까지 복습지시, 다음 차시 시험 예고
파지와 전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론, 공리주의 수업 내용 정리(파지) •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상황을 제시하고 생각해보도록 하기(전이) • 생명, 성, 가족 윤리에 대해 오늘 내용과 연관지어 간단히 소개

II.2 교수-학습과정안 개발의 논리

본 교수학습개발안은 교안 개발을 위한 표준 모형으로서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란 주의 획득, 수업 목표 제시, 선수학습 회상자극, 자극 제시, 학습 안내, 수행 유도, 피드백 제공, 수행평가, 파지와 전이 높이기를 말한다(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15)

이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과 윤리 수업이며 학습 단원은 대단원 '1.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의 중단원 '3.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 소단원 '01. 의무론적 접근' 과 '02. 공리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 이 단원에는 기본적인 규범 윤리학인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배려 윤리가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다. 이 단원의 선수학습으로는 중단원 '1.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의 필요성'이 있고, 이 수업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본 수업의 학습 목표는 공리주의, 의무론의 개념을 비교할 수 있고, 이론가들의 사상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론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교사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을 때 각 이론가의 입장이 되어 상황을 해석하고 각 이론에 따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한 뒤 주의력 획득을 위해서 영상자료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작은 배에 표류한 상황에서 철학자들의 토론을 시청하면서 수업 전반에 대한 흥미를 돋운 뒤 영상에 대한 정리 질문을 던져 학생들의 주의를 끌고자 했다. 그리고 학습 목표와 결과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동기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후에 사전지식 회상 자극에서는 Socratic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였고, 즉각적으로 피드백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자세를 갖추 수 있도록 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4단계인 자극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두 번째 영상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센델)'와 여러 미디어에서 이미 소개된 적이 있는 트롤리 논쟁을 흥미롭게 재해석한 EBS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유지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공리주의와 의무론에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였다. 학습 안내를 제시할 때에는 준비해 둔 ppt와 판서를 이용하여 지식을 습득하도록 했는데 이 때 예시와 실제 상황을 적절히 섞어가며 이해를 도왔다. 수행유도 단계에서는 총 두 가지 활동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활동은 교사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 3인 1조로 각 학생이 칸트/벤담/밀을 맡아 각 이론가의 입장에서 상황 해석 및 입장 대변을 하는 활동이다. 이 때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활동을 돕고, 피드백 단계에서 이에 대한 example과 non-example을 제시해 아이들이 지식을 이해하고 활동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습목표 중 '자신의 언어로 이론 설명하기'와 '우리 삶에서 이론을 적용하여 도덕적 선택 내리기'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활동은 Socratic을 통한 연습문제 풀이이다. 해당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학습 목표와 부합하는 연습문제를 풀며 정리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함으로써 수업 내용을 응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에 시험을 예고하여 평가계획을 알리고, 수업 내용 최종정리, 실생활 적용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파지와 전이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다음 차시에 배울 내용인 생명, 성, 가족 윤리와 이번 차시 내용의 연결지점을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수업 내용이 학생들의 인지구조 안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왔다.

Ⅲ. 수업교안

수업사태	실행	시간
주의획득	<p>- 인사 및 수업 주제 제시</p> <p>-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차이를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 시청 칸트/벤담/밀/윤리논쟁/정언명령/양적 질적 공리주의'</p> <p>교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철학자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시청해봅시다.</p> <p>-시청 후 간단한 질문 제시</p> <p>교사: 이 영상에는 작은 배에 표류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철학자들이 나왔는지 기억하나요?</p> <p>학생들: 네. 칸트, 벤담, 밀이요.</p> <p>교사: 네 맞아요. 여러분은 저 중에서 어떠한 입장이 맞는 것 같나요? 두 학생의 의견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p> <p>학생1: 저는 칸트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p> <p>학생2: 저는 의견이 조금 달라요. 벤담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했으니 옳다고 생각합니다.</p> <p>교사: 모두 훌륭한 의견이에요. 이번 시간이 끝날 때에는 의무론자와 공리주의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영상에서 제시된 상황 외에도 직접 우리 삶에 이론들을 대입해 볼 수 있을 거예요.</p>	5분
학습목표 제시	<p>-학습목표 제시</p> <p>교사: 그러면 칠판 위에 오늘의 학습목표를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p> <p>학생: 1. 공리주의, 의무론의 개념을 알고 이를 비교하여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2. 공리주의, 의무론을 대표하는 이론가들(칸트, 벤담, 밀)의 발언만 보고 이것이 어느 이론가의 발언이며 어느 이론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다. 3. 우리 삶의 여러 상황에서 각 이론가의 입장이 되어 도덕적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이의 이점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p> <p>교사: 잘 했어요. 학습목표에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의 키워드는 공리주의, 의무론, 칸트, 벤담, 밀이에요. 수업시간 내내 각 키워드들에 집중하</p>	1분

<p>선수학습 회상</p>	<p>면서 참여해 봅시다.</p> <p>-간단한 질문 제시</p> <p>교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윤리학이 무엇인지, 윤리학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들 기억나나요?</p> <p>학생: 네</p> <p>교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만 풀어 볼게요. 다들 Socrative에 접속해 봅시다.</p> <p>-Socrative app 활용. [윤리학의 분류] 문제 풀이1</p> <p>-문제 풀이</p> <p>1 of 2</p> <p>다음 설명과 관계가 깊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p> <p><input checked="" type="radio"/> A 규범 윤리학</p> <p><input type="radio"/> B 메타 윤리학</p> <p><input type="radio"/> C 기술 윤리학</p> <p>SUBMIT ANSWER</p> <p>교사: 첫 번째 답은 뭐죠?</p> <p>학생: A요.</p> <p>교사: 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설명은 도덕적 판단을 중시하는 규범 윤리학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메타 윤리학은 도덕의 언어에,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문제를 기술하는 것에 집중하는 윤리학이에요.</p> <p>교사: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봅시다.</p> <p>2 of 2</p> <p>다음 중 설명하는 윤리학이 다른 것 하나는?</p> <p><input type="radio"/> A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연구한다.</p> <p><input checked="" type="radio"/> B '좋은(good)'과 '옳은(right)'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한다.</p> <p><input type="radio"/> C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탐구한다.</p> <p><input type="radio"/> D 실제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input type="radio"/> E 사람의 성품, 행위, 법, 제도, 관습 등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린다.</p> <p>SUBMIT ANSWER</p> <p>- 문제 풀이2</p> <p>교사: 모두 풀었나요?</p> <p>학생: 네.</p> <p>교사: 두 번째 답은 뭐죠?</p> <p>학생: B요.</p> <p>교사: 네 맞아요. B는 어떤 윤리학이어서 다른 건가요?</p>	<p>5분</p>
--------------------	---	-----------

	<p>학생: 메타윤리학이요.</p> <p>교사: 맞아요. 1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메타 윤리학은 도덕의 언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좋은(good)’과 옳은(right)’과 같은 용어의 의미 해석을 중시합니다. 나머지 A, C, D, E는 모두 무슨 윤리학에 속하나요?</p> <p>학생: 규범 윤리학이요</p> <p>교사: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A, C는 이론 규범 윤리학, D, E는 실천 규범 윤리학에 속하는 설명입니다.</p> <p>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클래스 123 게시판에 풀이를 올려놓았으니 확인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댓글로 질문하도록 하세요.</p>	
<p>자극자료 제시 1</p>	<p>교사: Socrative에서 지난 시간 수업을 복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배우는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규범 윤리학에 속하는 윤리학이예요. 이론 규범 윤리학은 무엇을 중시하는 학문인지 ppt를 보고 읽어볼까요?(ppt)</p> <p>학생: 도덕 판단의 기준이요.</p> <p>교사: 맞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도덕 판단의 기준이 작용하는 게 옳을지 생각해 봅시다.</p> <p>- 트롤리딜레마 영상자료 시청: 1분 https://www.youtube.com/watch?v=RmJIN8iDW9w</p> <div data-bbox="432 1391 1190 1680"> </div> <p>교사: 상황 1에서는 총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어떠한 선택지였나요?(ppt)</p> <p>학생: 다섯 명의 인부를 죽이거나 한 명의 행인을 죽이는 것이요.</p> <p>교사: 맞아요. Socrative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p>	<p>5분</p>

	<p>는지 선택해 볼까요?</p> <p>교사: 00:00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에서의 선택지에는 어떠한 게 있었죠?(ppt)</p> <p>학생: 다섯 명의 인부를 죽이거나 운전자가 죽는 것이요.</p> <p>교사: 맞아요. 이번에도 Socative를 이용해서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투표해 봅시다.</p> <p>교사: 상황 1과 상황 2에서 여러분 중 대부분은 5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인부 한 명을 죽이거나 자신이 죽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러한 여러분의 의견은 ‘공리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p>	
<p>학습안내 제공 1</p>	<p>교사: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고 공리주의의 핵심 의견을 한 번 읽어 볼까요?(ppt)</p> <p>학생: ‘최대다수의 최대행복’</p> <p>교사: 잘했어요. 공리주의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윤리학 이론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5명이 죽는 상황보다 1명이 죽는 상황이 낫다고 생각한 이유도 공리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 것 기억나죠?</p> <p>학생: 네</p> <p>교사: 그것도 1명이 죽는 것이 5명이 죽는 것보다 공리를 덜 헤치기 때문에 선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접근이란 무엇일까요? (ppt) ppt를 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p> <p>학생: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며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그릇된 행위이다.’</p> <p>교사: 잘했어요. 이처럼 공리주의에서는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의 목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을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쾌락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결과주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리주의는 이론가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봤던 영상에서 두 명의 공리주의자가 나왔어요. 누구누구였지요?</p> <p>학생: 벤담이요.</p> <p>학생: 밀이요</p>	7분

	<p>교사: 맞아요. 벤담과 밀은 각각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의 주창자랍니다. (ppt)</p> <table border="1" data-bbox="392 409 1254 692"> <tr> <td data-bbox="392 409 496 573">벤담</td><td data-bbox="496 409 1254 5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의 선악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가정하고 쾌락을 계산한다. </td></tr> <tr> <td data-bbox="392 573 496 692">밀</td><td data-bbox="496 573 1254 6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쾌락이다. </td></tr> </table> <p>교사: 벤담은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여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만을 측정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밀은 쾌락마다 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했어요. 밀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이야기 한 점에서도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안겨주는 공리주의가 나쁠 것이 없어보이는데,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p> <table border="1" data-bbox="392 1019 1254 1173"> <tr> <td data-bbox="392 1019 496 1055">장점</td><td data-bbox="496 1019 1254 1055">근대 민주주의 성립에 기여, 효율적 정책과 제도 확립에 적용</td></tr> <tr> <td data-bbox="392 1055 496 1173">단점</td><td data-bbox="496 1055 1254 1173">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여김. 개인 또는 소수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 유용성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범위에 들지 않는 존재에 대해 차별할 수 있음.</td></tr> </table> <p>교사: 이와 같이 공리주의는 결과만을 중시하기에 개인의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여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이 정말 선한 의도로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금이 악의적으로 잘못된 곳에 사용되었다면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기부라는 행위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러한 판단이 반드시 옳은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이와 같이 공리주의는 공리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 확립에 적용된다는 사회적 측면의 장점을 갖지만, 개인의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여긴다는 단점을 가집니다.</p>	벤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의 선악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가정하고 쾌락을 계산한다. 	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쾌락이다. 	장점	근대 민주주의 성립에 기여, 효율적 정책과 제도 확립에 적용	단점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여김. 개인 또는 소수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 유용성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범위에 들지 않는 존재에 대해 차별할 수 있음.
벤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의 선악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가정하고 쾌락을 계산한다. 								
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쾌락이다. 								
장점	근대 민주주의 성립에 기여, 효율적 정책과 제도 확립에 적용								
단점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여김. 개인 또는 소수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 유용성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범위에 들지 않는 존재에 대해 차별할 수 있음.								
<p>자극자료 제시 2</p>	<p>교사: 이제 의무론을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트롤리 딜레마에서 마지막 상황을 더 보고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p> <p>- 트롤리딜레마 영상자료 시청: 30초 https://www.youtube.com/watch?v=RmJIN8iDW9w</p> <p>교사: 이번에는 다리 위라는 상황이 추가되었어요. 상황 3에서는 총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어떠한 선택지였나요?</p> <p>학생: 옆에 있는 덩치 큰 사람을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요.</p>								

	<div data-bbox="429 331 1190 620" data-label="Image"> </div> <p>교사: 맞아요. Socratic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해 볼까요?</p> <p>교사: 00:00이네요. 아까는 대부분이 다섯 명 대신 한 명이 죽는 것이 낫다고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죽는 사람의 수는 동일한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p> <p>이러한 여러분의 의견은 살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무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p>
<p>학습안내 제공 2</p>	<p>교사: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고 칸트 의무론의 핵심 의견을 한 번 읽어 볼까요?(ppt)</p> <p>학생: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면서 오로지 의무 의식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p> <p>교사: 잘했어요. 의무론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의무 의식’을 중시하는 윤리학 이론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이유도 의무론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 것 기억나죠?</p> <p>학생: 네</p> <p>교사: 그것도 인간은 반드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론에 근거하여 선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의무론에서의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정언명령이란 무엇일까요? (ppt) ppt를 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p> <p>학생: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p> <p>교사: 그 밑에 가언명령도 읽어볼까요?</p>

	<p>학생: ‘어떤 조건이 붙는 명령으로 ‘만약 네가 A를 원한다면 너는 B를 행해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p> <p>교사: 잘했어요. 이처럼 의무론에서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건이 붙어서 행위가 옳은 것이기 보다는 행위 그 자체가 선을 내포하고 있기에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의무론에서의 의사 결정은 정언명령의 보편화 정칙과 인간성 정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p> <table><tr><td>보편화 정칙</td><td>-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td></tr><tr><td>인간성 정칙</td><td>- 너 자신의 인격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td></tr></table> <p>교사: 따라서 의무론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먼저 해당 준칙을 보편 진술로 바꾼 후에 그 진술을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거치게 되면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거부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의무론에도 시사점과 한계가 존재합니다.</p> <table><tr><td>시사점</td><td>인간 존엄성의 이념과 보편적인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td></tr><tr><td>한계</td><td>- 형식만을 제공하여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 - 의무가 충돌할 때 적절한 도덕판단을 내리기 어려움</td></tr></table> <p>교사: 이와 같이 의무론은 형식만을 제공하고 의무와 동기만을 중시하기에 실제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살인자에게 쫓기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이 숨겨주었는데 살인자가 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학생: 살인자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숨겨줘야 해요.</p> <p>교사: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러할 것이예요. 하지만 칸트는 인간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비판할 것입니다.</p>	보편화 정칙	-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인간성 정칙	- 너 자신의 인격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시사점	인간 존엄성의 이념과 보편적인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	한계	- 형식만을 제공하여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 - 의무가 충돌할 때 적절한 도덕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보편화 정칙	-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인간성 정칙	- 너 자신의 인격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시사점	인간 존엄성의 이념과 보편적인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									
한계	- 형식만을 제공하여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 - 의무가 충돌할 때 적절한 도덕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수행유도 1	<p>- 활동 1)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각 이론가의 입장을 대변해보기</p> <p>교사: 자 이제 3인 1조로 앉아서 활동을 해 볼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p>	10 분								

	<p>화면에 상황 한 가지를 제시해 줄 건데 이를 보고 3명이 각각 칸트/벤담/밀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7분 시간 드릴게요. (ppt 자료제시,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돕기)</p>						
	<p>교사: 그러면 이제 활동을 마무리해볼까요? 주어진 상황은 재판에서 증인이 된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진실된 증언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각 이론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Example 제시)</p> <table border="1"> <tr> <td>칸트</td> <td>도덕은 결과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되는 것이기에 몇 명이 살 수 있든 인간이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td> </tr> <tr> <td>벤담</td> <td>다섯 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td> </tr> <tr> <td>밀</td> <td>살아남는 사람이 앞으로의 여생을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td> </tr> </table>	칸트	도덕은 결과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되는 것이기에 몇 명이 살 수 있든 인간이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벤담	다섯 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밀	살아남는 사람이 앞으로의 여생을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칸트	도덕은 결과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되는 것이기에 몇 명이 살 수 있든 인간이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벤담	다섯 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밀	살아남는 사람이 앞으로의 여생을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p>피드백 제공하기 1</p>	<p>(Non-Example 제시)</p> <p>교사: 한편 여기서 벤담이나 밀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칸트의 입장에 더 적합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의무론에 더 적합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명의 삶을 살리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것은 칸트의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입장은 상대적이고 결과론적인 윤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무조건적으로’라는 말을 제외한 채로 벤담의 입장에 대입되어야 맞을 것입니다.</p> <p>교사: 여러분 모두 훌륭한 활동 보여주었습니다. 각 조에서 나눈 의견은 클래스 123에 정리해서 다음 시간 전까지 올리도록 하세요.</p> <p>학생: 네.</p>						
<p>수행유도 2</p>	<p>- 활동 2) Socratic을 통해 연습문제 풀기</p> <p>교사: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몇 가지 연습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다들 Socratic에 들어가서 오늘의 연습 문제 4개를 풀어주세요. 네 문제는 이론가들의 발언을 구분하는 객관식 문제이고, 마지막 문제는 각 상황에서 이론가들의 입장을 구분해보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는 각 이론가가 누구인지 작성하는 방식으로 답변해 주세요.</p>						

1) 이론가들의 발언 구분

1 of 4

다음 사상은 어느 이론가의 사상인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 원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모든 행위는 질적으로 동일하며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를 계산하여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한다.]

- ☐ A 칸트
- ☐ B 벤담
- ☐ C 밀

SUBMIT ANSWER

2 of 4

다음 사상은 어느 이론가의 사상인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 ☐ A 칸트
- ☐ B 벤담
- ☐ C 밀

SUBMIT ANSWER

3 of 4

다음 사상은 어느 이론가의 사상인가?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 ☐ A 칸트
- ☐ B 벤담
- ☐ C 밀

SUBMIT ANSWER

2) 각 상황에 따른 이론가들의 입장 구분

	<p>4 of 4</p> <p>어벤져스 시리즈의 인피니티워의 마지막 장면에서 타노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류 전체가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 아래에 인류의 절반을 날려 남은 생명들이 살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때 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잃어야 한다는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사라지게 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에 대해 A, B, C이론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p> <p>A: 개인의 입장에서 소중한 하나의 목숨을 잃음으로써 인류 절반의 인생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이 행동은 매우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p> <p>B: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인류의 절반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인해 남은 사람들의 삶은 이전보다 암울해질 수도 있어.</p> <p>C: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어. 그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p> <p>Enter Answer Here</p>	
피드백 제공하기 2	<p>교사: (Socratic을 통해 학생의 문제풀이 여부를 살핀 뒤) 문제를 다 푼 것 같으니 풀이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면, 첫 문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최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칸트는 일단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괄호를 보면 모든 행위가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밀이 아닌 벤담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쾌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로 보아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밀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세 번째 문제는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논하고 있으므로 칸트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p> <p>학생: (질문)</p> <p>교사: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 각 상황에 따른 이론가들의 입장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모두 어벤져스 인피니티워를 봤나요?</p> <p>학생: 네.(혹은 아니요.)</p> <p>교사: 네 몇몇은 보고 몇몇은 보지 않은 것 같네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 타노스는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인류 절반을 날려서 남은 인류를 지켜내고자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A, B, C 이론가는</p>	6분

	<p>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A는 어떠한 이론가인 것 같나요?</p> <p>학생: 벤담이요.</p> <p>선생님: 네 맞아요. 이익을 양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A는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B는 어떠한 이론가라고 생각해요?</p> <p>학생: 밀이요.</p> <p>선생님: 맞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익과 쾌락을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으므로 B는 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C는 어떠한 이론가인 것 같나요?</p> <p>학생: 칸트요.</p> <p>선생님: 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의무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C는 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p>	
수 행 의 평가	<p>-다음 차시 시험 예고</p> <p>교사: 오늘 수업 다들 잘 들었나요? 오늘 수업에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Socrative를 통해서 이전 학습을 복습하면서 쪽지 시험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 자료는 class 123에 올려 줄테니 다음 시간까지 복습해 오도록 하세요.</p> <p>학생: 네.</p>	12분
파지와 전이 증진	<p>- 질문하며 요약 및 정리(파지)</p> <p>교사: 오늘은 의무론과 공리주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나요?</p> <p>학생: 네.</p> <p>교사: 의무론을 대표하는 이론가는 누구였죠?</p> <p>학생: 칸트요.</p> <p>교사: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두 이론가는 누구였죠?</p> <p>학생: 벤담과 밀이요.</p> <p>교사: 벤담은 어떤 공리주의를 주장했죠?</p>	3분

	<p>학생: 양적 공리주의요.</p> <p>교사: 밑은 어떠한 공리주의를 주장했나요?</p> <p>학생: 질적 공리주의요.</p> <p>-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상황을 제시하고 생각해보도록 하기(전이)</p> <p>교사: 네 모두 잘했어요.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오늘 제시한 트롤리 딜레마, 법정에서의 사례, 인피니티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더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사회의 법과 정책을 제정할 때에도, 학급회의를 진행해서 수학여행지나 학급 단체티를 정할 때에도, 교실 자리를 재배치할 때에도 이 이론들이 이용될 수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더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p> <p>학생: 네.</p> <p>- 다음 차시 수업 예고</p> <p>교사: 다음 차시에는 생명, 성, 가족 윤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번 수업에서는 보편적인 도덕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다음 번 수업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서 윤리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다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p> <p>학생들: 네.</p> <p>-인사하며 수업 종료</p>
--	---

참고문헌

-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2015).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임철일(2012).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파주 교육과학사.
- 정창우(2017).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윤리**. 서울 미래엔.